

2024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24. 1. 10.(수) 14:00 ~ 15:00
장 소	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
안 건	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 기본 계획(안) 심의

< 회 의 내 용 >

□ 위원 소개

□ 성원보고 및 개회: 위원 7명 중 6명 참석, 위임 1명(변호사 김형규)으로 2024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

□ 전차 회의록 낭독: 2023년도 제1회 회의 요약 보고 후 전차 회의록 접수

□ 2024년 등록금 책정 기본 계획(안) 제안 설명: 간사 김도욱

○ 일반 현황 (근거, 재정여건, 2024학년도 재정 수요, 등록금 연계 사항 등)

○ 2024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

1. 2024학년도 등록금(수업료) 책정(안)

- 1안: 학부 동결, 대학원 5.0% 인상
- 2안: 학부 동결, 대학원 4.0% 인상

2. 2024학년도 신설 학과(전공) 및 그 외 등록금 책정(안)

3.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금 책정(안)

- 1안: 110,000원으로 책정 (정액)
- 2안: 수업료의 5%로 인하 (학과별 차등 부과)

□ 안건 심의

- (위원장) 먼저 첫 번째 안건 중 '24학년도 학부 등록금 수업료 책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음. 의견 개진 요청.
- (○○○ 위원) 학부 등록금 관련 국가장학금을 지키는 선에서 5.8%까지 인상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정보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?
- (○○○ 위원)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학부 등록금 관련 이번 연도에는 동결해달라는 요청 공문이 왔음.
- (○○○ 위원) 그러면 차년도부터 학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지?

- (○○○ 위원) 아직 정해진 건 없음.
- (○○○ 위원) 수업료를 올려서 얻는 혜택과 올려서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손해 중 뭐가 더 큰가?
- (○○○ 위원)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혜택보다 손해가 큼. 각종 재정사업의 정성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(○○○ 위원)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?
- (○○○ 위원)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. 등록금도 조건 중 하나이므로 등록금을 올리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.
- (○○○ 간사) 참고로 작년 등록금 책정할 때 교대가 일제히 올랐음. 올해는 교육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자제 및 동결을 요청하였음.
- (○○○ 위원)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 올리면 학부형이 받을 고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예상됨. 대부분의 거점국립대학교에서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.
- (○○○ 위원) 교대에 작년 등록금을 올려 불이익을 받은 게 있나?
- (○○○ 간사)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았을 것임.
- (○○○ 위원) 교대는 일반대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육성 사업이나 타 사업의 정성적 평가 부분에서의 우려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.
- (○○○ 위원) 발생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동결하는게 맞다고 생각함.
- (위원장) 원안대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가?
[전체 동의]
- (위원장) 전체 동의함으로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.
- (위원장) 다음으로 첫 번째 안건 중 대학원 등록금에 대하여 심의하겠음.
의견 개진 요청.
- (○○○ 위원) 현재까지 학부 등록금이 동결된다고 가정을 하면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교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됨. 하루 전 개최된 예산편성위원회(본예산)때 논의했던 예상 세입액에 대학원 인상분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?
- (○○○ 위원) 포함되어 있지 않음.
- (○○○ 위원) 학교의 재정적 사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으나, 대학원생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올림으로써 대학원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 개선이나 처우 개선, 혜택 등을 자료로 제시해 준다면 좋겠음.
- (○○○ 위원) 작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1안을 선택하고 1%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법을 제안함.

- (위원장) 작년에도 1%인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학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등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논의했었음.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?
- (○○○ 위원)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대학원의 장학금을 2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음. 이번에도 일정 비율을 정하면 그 금액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- (○○○ 위원) 작년에는 몇 퍼센트가 인상되고 몇 퍼센트가 장학금에 투입되었는가?
- (○○○ 위원) 4% 인상했음. 그리고 1% 장학금 투입을 논의했었음.
- (○○○ 위원) 만약 5.64%를 인상한다고 하면 1.64%가 대학원생한테 오고 나머지는 학교 예산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함.
- (○○○ 위원) 공공요금으로 쓰인다고 보면 될 것 같음.
- (○○○ 간사) 인상분은 따로 특별한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는 것이 아니며, 물가 상승이 됨에 따라 인건비와 공공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편성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음.
- (○○○ 위원) 공공요금 등도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주면 인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음. 또한 만약에 학부 등록금 인상이 내년부터 된다고 하면 그때는 대학원생이 동결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함. 지금까지 올려왔던 것에 대하여 보상이 대학원생한테 와야 한다고 생각함.
- (○○○ 위원) 그 부분은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차년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.
- (○○○ 위원) 수업료를 5.64% 인상하고 그중 1.64%는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혜택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?
- (○○○ 간사) 교육부 인상 상한이 5.64%인데 1안에서의 5%로 잡은 근거는 평균 등록금 산식을 통하여 계산한 최대치로 5%를 산출한 것임.
- (○○○ 위원) 5% 인상이 결정되면 그중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원생의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추가경정예산편성위원회에 제안하겠음.
- (○○○ 위원) 이 내용에 대하여 대학원 측에서 따로 자료를 통해 요청을 드려야 하는가?
- (○○○ 위원) 따로 제출하는 것은 없음.
- (위원장) 그렇다면 1안 5%인상으로 의결을 하고, 논의되었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
[전체 동의]

- (위원장) 다음 두 번째 안건인 신설 학과(전공) 및 그 외 등록금(시간제등록생, 수료후연구생)에 대한 의견 요청

- (○○○ 위원) 반도체융합학과가 고가의 장비와 실험실습비 등으로 인해 공과대학에 준하여 등록금이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이 학과의 학생들은 설비나 기자재 면에서 그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함.
- (위원장) 현재 반도체 관련 사업비를 통해 많은 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 등이 구비될 것으로 보임. 따라서 반도체융합학과가 자연과학대학 소속이지만 공과대학에 준하는 등록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.
- (위원장) 추가 의견 없으므로 2안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.
[전체 동의]
- (위원장)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금 책정(안)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의견 개진 요청.
- (○○○ 위원) 작년 학사학위 취득 등록금이 학과별 등록금의 8%였고, 1안은 110,000원(정액)으로 내린 것이며, 2안은 8%를 5%로 내린 것임.
- (위원장) 1안의 정액으로 적용하였을 때 오히려 금액이 올라가는 단과대학도 있는지?
- (○○○ 위원) 모든 단과대학이 작년 금액(8% 적용)보다 낮음.
- (○○○ 위원) 학과별 차이로 인해 3배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음. 학교에 적을 유지하는 비용이라면 정액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음.
- (위원장) 현재 학교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면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음.
- (○○○ 위원) 관리면에서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우며, 부차적으로 유예학생이 늘거나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- (○○○ 위원) 이공계열이나 의학계열의 학적 유예생은 기본적인 학교 시설 이용 외에 해당 대학 내의 실습실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?
- (○○○ 위원) 실험실의 경우 관리 주체가 교수들이고 사용 주체는 수업을 듣는 학생임. 현실적으로 졸업 유예생들이 실험실을 사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음.
- (위원장) 1안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?
[전체 동의]
- (위원장) 1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
- (○○○ 위원) 기타 질문으로 학부가 8학기인데 7학기까지 학점을 다 듣고 8학기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등록금은 똑같이 납부를 하고 있음. 혹시 이런 경우 등록금(수업료)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?
- (○○○ 간사) 대학 내에 자율권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(위원장) 회의 결과 정리 후 폐회 선언함.

□ 회의 결과

○ 등록금(수업료) 책정(안)

- 학부: 동결
- 대학원(전문·특수 포함): 5% 인상

※이 중 1%는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예산에 투입하는 것을 예산편성위원회에 건의.

○ 신설학과(전공) 및 그 외 등록금 책정

- 해당 학과 의견 반영 및 신설학과(전공) 동일계열 또는 유사학과와 동일하게 책정

(단위 : 원)

구분	연번	학과(전공)		해당 학과 의견 반영	수업료	결과
학부	1	자연과학대학	반도체융합학과*	공과대학 준용	2,422,000	원안 가결
	2	공과대학	에너지공학과	공과대학 준용	2,422,000	
일반 대학원	1	지구환경·우주융합과학과(석사)		자연과학계열 준용	2,692,000	
	2	지구환경·우주융합과학과(박사)		자연과학계열 준용	3,030,500	
	3	축산환경학과(석사)		농업생명과학대학 준용	2,672,000	
	4	법학과(석사)		인문사회계열 준용	2,170,500	

*고가의 장비와 실험실습재료비가 소요되어, 공과대학 준용

- 시간제등록생, 수료후연구생: 전년 동일 책정

○ 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금 책정(안)

- 110,000원(정액)으로 책정

출석현황	출석대상자		7명	참석자	소 속		직 위	성 명	
	출 석		6명		학 생 처	위 원 장	이 창 훈		
	위 입		1명						
	불 참		.						
위임	김형규 위원				경 영 학 부	위 원	장 호 규		
불참	.				재 무 과	위 원	김 용 구		
기타참석자	- 재무과 경리팀장 김도욱 - 기획평가과 팀장 김윤경 - 재무과 담당자 손지혜				대 학 원 총 학 생 회		위 원	최 종 규	
					총 학 생 회		위 원	이 찬 술	
					총 학 생 회		위 원	김 선 호	
확 인 자		소속: 등록금심의위원회			직 : 위 원 장		성명 :	이 창 훈 (인)	
작 성 자		소속: 기 획 평 가 과			직 : 행 정 서 기		성명 :	최 상 아 (인)	